산업맥박

IT서비스 업체들의 해외 진출 동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5년은 국내 IT서비스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된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삼성SDS, LGCNS, 현대정보기술, 포스데이타, 쌍용정보통신, KT인포텍 등 국내 SI업계를 대표하는 업체들은 해외시장 진출을 올해 중점 사업목표로 선정하고 전략거점의 선정, 인력과 조직의 확대 및 개편, 관련 인프라의 정비 등 구체적 수출 실적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그 동안 국내 IT서비스 업체 중 일부는 중국,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가 값비싼 수업료만 내고 별다른 구체적 실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2005년에는 대부분의 업체가 매출의 10% 혹은 그 이상을 해외에서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해외 진출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 성숙에 따른 새로운 돌파구 마련

이처럼 IT서비스 업체들이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시장의 성숙으로 인해 IT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꾀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의 파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해외 시장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 전자정부 사업 및 일반 기업의 IT서비스 사업의 수행을 통해 축적된 사업경험과 기술력으로 각종 솔루션 및 프로그램의 재사용을 통해 프로젝트기간과 투입인력의 단축 등 생산성을 향상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정부/공공기관의 IT서비스 해외 수출을 통한 산업활성화 추진을 위해 펼치고 있는 각종 지원정책이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어 IT서비스 업체들이 앞다투어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IT서비스 업체들의 해외 진출은 프로젝트당 평균 2~3년의 사전 영업기간이 소요되고 프로젝트의 규모가 대형인 경우가 많아 개별 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철저한 사업 준비와 함께 해외 현지에 대한 정보부족과 투자 위협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부/공공기관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IT서비스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IT 한류열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에 다가서고 있다.

중국, 일본, 동남아에 이어 중동, 중남미까지 글로벌 IT KOREA 구축

국내 IT서비스 업체가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린지도 벌써 5년이 넘어서고 있다. 지금까지 업체들이 주로 진출했거나 진출을 시도한 지역은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우리나라와 지역적으로 가깝고 현지 시장의 정보 파악이 비교적 쉬운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IT산업의 본고장인 미국은 물론 중동과 중남미 지역까지 국내 업체들의 진출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프로젝트 규모도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등 양적·질적으로도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IT 서비스 업체들의 주요 진출 현황

업체명	주요진출국가	법인 및 사무소 현황
삼성SDS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미국, 중국, 영국, 브라질 (이상 법인) UAE, 일본, 멕시코, 독일 (사무소)
LGCNS	미국, 말레이시아, 중국, 과테말라, 파나마 등	미국, 중국, 인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단독법인), 중국 광저우, 쌍둥, 일본 (합작법인)
현대정보기술	베트남, 파키스탄, 영국 등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단독법인) 파키스탄, UAE, 중국 (합작법인)
포스데이타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도미니카, 튀니지 등	중국 (사무소), 미국 (연구소)
쌍용정보통신	카타르	
LG히다찌	일본, 중국 등	
SK C&C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이 밖에도 KT인포텍, 동부정보기술, NDS 등의 업체들도 해외 사업 진출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면서 본격적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업체들은 해외 진출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고급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현지법인 및 사무소를 확충하는

등의 조직 정비와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여 전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 IT 서비스 업체들의 주요 해외 프로젝트 실적 (1999~2005)

업체명	프로젝트 실적
삼성SDS	- 일본, 사가시 전자자치행정시스템 - 미국, 국방성 군 의료연구센터 전산시스템 관리/아웃소싱 프로젝트 수주 - 중국, 광저우성 지하철 1, 2호선 역무자동화(AFC)시스템 구축, 3호선 APC사업 수주 - 중국, 텐진시/우한시 AFC 사업 수주 - 베트남 조달정보화사업
쌍용정보통신	- 카타르, 아시안게임 대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 2003 팬암게임 (Pan American Games) 등록정보 및 물자물류시스템 사업
포스데이타	- 중국, 제남강철 통합생산관리시스템 수주 - 중국, 남경강철, 장가항포항불수강유한공사, 소관강철, 대련포금강판 프로젝트 - 태국, SSI (Sahaviriya Steel Industry) 프로젝트 - 인도, VSP 제철, TATA 제철 프로젝트 -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개발센터 지원사업, 개도국 인터넷 교육훈련센터 지원사업 -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프로젝트 - 튀니지, 국립 취업훈련센터 프로젝트 - 중국, 취업훈련 기술지도센터 구축 - 도미니카공화국, 지역자치단체 행정정보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 컨설팅 프로젝트, 지자체 행정정보화 사업
현대정보기술	- 베트남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사업, 전산시스템 확장 사업, 농협은행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 수출입은행 전산화 구축사업 - 파키스탄 중앙은행 종합금융전산망시스템 구축사업, ERP/DW 프로젝트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금융전산화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LG CNS	- 말레이시아 프로톤 AC BPO (Automotive Consulting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프로젝트 사업 - 미국 라스베가스 프리몬트 스트리트 영상쇼 시스템 - 중국 텐진시 경전철 AFC사업, 중량주업(중량져예) 영업/채권관리시스템 사업, 베이징스이카통궁스 (북경시정일카통공사) 입장권 자동판매/수거시스템 사업 - 인도네시아 경찰청 범죄정보센터 구축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필리핀 등기청 등기부전산화 프로젝트 - 과테말라 출입국보안시스템 - 파나마 사법형사 통합 DB 구축사업
SK C&C	- 사우디 제 다시 국영 TV스테이션 방송시스템 구축 사업 - 우즈베키스탄 우정현대화사업 - 몽골 주민등록 정보화사업, e거버먼트 구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 사업
KT	- 도미니카 출입국관리프로젝트, 과테말라 교육정보화사업
KTNET	- 카자흐스탄 관세행정 현대화 구축 사업 ISP/BPR 컨설팅 (삼성 SDS 공동)

〈자료 : 각사〉

2005년 IT서비스 수출 4억7천만 달러 예상

2004년 우리나라의 IT서비스 총 수출 실적은 4억3천만 달러 수준으로 2003년 대비 8.3% 증가했다. 특히, 이중에서 컨설팅, SM 등을 제외한 순수 SI 부문의 수출액은 2억9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품목별, 연도별 수출 현황(단위 : 천US$)

세부항목	2003	2004
컨설팅	9,154	7,149
SI	279,071	294,049
SM	110,816	168,317
계	399,041	432,053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5. 02 재편집〉

각 업체들의 매출목표로 추정해 본다면 2005년 IT서비스 수출 실적은 약 4억7천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순수 SI 수출 실적은 약 3억2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든든한 지원군

특히, 정부 주도의 전자정부 프로젝트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IT서비스 업체들의 해외 진출에 활력소가 되고 있는데 2005년에만 전자정부 프로젝트 수출로 약 1억5천만 달러가 넘는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IT서비스 업체가 해외 전자정부 프로젝트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총 42건이며, 프로젝트 발주금액은 8억4,7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서 정부간 협력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은 총 20여개로 4억 2,700만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다.

현재 동서남아시아, CIS/중동, 중남미, 중국, 일본, 기타 지역에서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간 전자정부 프로젝트 협력사업은 IT서비스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직접 접촉하기 힘든 개도국 정부를 정부기관이 직접적으로 연계해 줌으로써 국내 업체의 수주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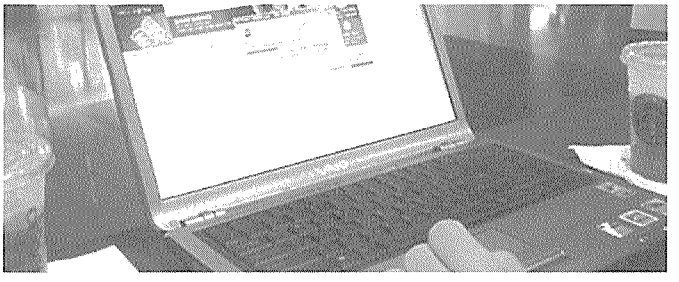
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국가 및 사업

지역구분	현재 추진중인 국가 및 사업	
동서남아시아	- 미얀마 (행정정보화)	
	- 스리랑카 (재정정보시스템)	
	- 베트남 (토지관리시스템, 조달정보화)	2개과제
	- 파키스탄 (조달정보화)	
	- 태국 (e-Trading)	
CIS/중동	- 예멘 (외무성보통합, MID관리시스템)	2개과제
중남미	- 코스타리카 (교육정보화)	
	- 도미니카 (출입국관리시스템, 지자체행정정보화)	
	- 파나마 (사법형사통합 DB구축)	1개과제
	- 과테말라 (e-Security, 교육정보화)	
	- 콜롬비아 (COMPATEL)	
현대정보기술	- 베트남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사업, 전산시스템 확장 사업, 농협은행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 수출입은행 전산화 구축사업	
	- 파키스탄 중앙은행 종합금융전산망시스템 구축사업, ERP/DW 프로젝트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금융전산화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LG CNS	- 말레이시아 프로톤 AC BPO (Automotive Consulting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프로젝트 사업	
	- 미국 라스베가스 프리몬트 스트리트 영상쇼 시스템	
	- 중국 텐진시 경전철 AFC사업, 중량주업(중량져예) 영업/채권관리시스템 사업, 베이징스이카통궁스 (북경시정일카통공사) 입장권 자동판매/수거시스템 사업	
	- 인도네시아 경찰청 범죄정보센터 구축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필리핀 등기청 등기부전산화 프로젝트	
	- 과테말라 출입국보안시스템	
	- 파나마 사법형사 통합 DB 구축사업	
SK C&C	- 사우디 제 다시 국영 TV스테이션 방송시스템 구축 사업	
	- 우즈베키스탄 우정현대화사업	
	- 몽골 주민등록 정보화사업, e거버먼트 구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 사업	
KT	- 도미니카 출입국관리프로젝트, 과테말라 교육정보화사업	
KTNET	- 카자흐스탄 관세행정 현대화 구축 사업 ISP/BPR 컨설팅 (삼성 SDS 공동)	

** 향후계획은 2005년에 MOU체결, 2006년에 F/S 실행예정인 7개 프로젝트를 포함*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철저한 현지화와 유관기관간 협력 모델 구축이 과제

국내 IT서비스 업체들의 해외 진출은 현재 국내 시장에서 축적한 프로젝트 경험 및 노하우를 경쟁력으로 개발도상국가들을 중심으로 교두보를 하나둘씩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개발도상국가들로부터의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구축 경험에 대한 전수 요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 IT서비스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이디어 단계, 시장정보 수집 및 부족한 현지 네트워크, 장기간 소요되는 프로젝트기간 등 숱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으로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체계적 지원 정책과 전략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뒷받침해야만 IT서비스 업체의 해외 진출이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 정보 수집, 타당성 조사 및 벤치마킹 지원, 정부간 협력, 세계은행(World Bank), 남미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수출보험 및 보증, 핵심 인력의 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위에 열거한 과제들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IT서비스 업체들도 단기간의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지 업계의 동향, 추세 등의 시장 정보는 물론, 현지화 능력을 배양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정부부처의 역할

관련부처	SI해외 진출 관련 역할	관련조직
정부부처	정부정책, 제도 등 경험	관세청, 조달청, 국세청,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정보통신부	F/S 지원, 홍보 등	iPark,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외교통상부	외교적 협력사업 채널	해외공관, KOICA 자금
재정경제부	EDCF 자금	수출입은행
SI업체	SI사업 추진 경험	IT서비스 업체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5〉